

4.27 도지사 보궐선거 후보자 지면토론회

본지는 4월 27일 실시되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지면토론회는 지난 주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민주당 최문순 후보에게 전자편지로 질문지를 보낸 후 답변을 받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후보자가 보내온 답변은 가감없이 그대로 실었습니다. <편집자주>

[개별질문] 엄기영 후보

정치적 소신으로 한나라당 선택

1. 엄기영 후보는 대중들에게는 진보성향의 인물로 비춰졌으나,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에 입당한 탓에 소신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답변 : 아시다시피 저는 민주당으로부터 즐거운 영입 제의를 받은바 있다. 그러나 저는 제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스스로 한나라당을 선택하였다. 강원도와 강원도민들을 위한 결단이었다. 강원도가 처한 위기극복과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이 필요하다는 것

이 저의 신념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아 강원도지사가 되겠다.

2. 민주당 최문순 후보는 춘천고등학교 후배이자 공영방송인 MBC의 직장 후배이기도 합니다. 도지사 후보가 되기 이전 학교와 직장 후배로서 평소 최문순 후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 최 후보는 사랑하는 고교 후배이지만, MBC 사장도 나보다 먼저 했고, 사장 임기 만료후에는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까지 받아 나보다 먼저 정치에 나섰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선배가 아닌가 싶다. 가장 처음으로 맺은 관계가 고교 선후배 사이인 만큼,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온 그런 입장에서 누구를 헐뜯고, 흠집을 내기보다 강원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서로 고민하는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는 좋은 구도라고 생각한다.

[개별질문] 최문순 후보

MBC 사장 구성원과 이사진의 선택

1. 최문순 후보는 MBC 재직시절 내부 직급이 부장 대수에 불과했는데, 정권의 힘에 의해 낙하산 인사로 사장에 임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답변 : 당시 MBC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었다. 제가 MBC 사장이 된 것은 개혁과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해 달라는 구성원과 이사진의 선택이었다. 실제로 경영 2년 만에 MBC의 르네상스를 이룩했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달성해 냈다.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네거티

브 아닌가.

2. 최문순 후보는 민주당 후보자 확정 직후 '이광재를 찾아와라, 강원도의 자존심을 찾아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기 색깔이 없이 이 전 지사의 후광에 의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 먼저 강원도민들이 왜 이광재 지사를 선택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강원도민들은 이광재 지사를 통해 강원도의 미래를 꿈꿨던 것이다. 제가 꿈꾸는 강원도의 미래 또한 다르지 않다. 주체적인 역량을 갖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강원을 만드는 것이다. 도민들이 저를 선택해 준다면 그것은 최문순과 이광재를 함께 얻는 것이다.

존경하는 인물 정약용·김대중···18번지 동행·전우여 잘 가라

[공통질문]①

*정치적인 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질문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

1.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기영=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님을 존경한다. 그는 실학을 집대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를 추구한 개혁가로 학문을 받아들임에 있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사회·경제 등 다방면에서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인간과 사회가 보다 풍요롭게 사는 것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제 소신과도 일치한다.

●최문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 땅 민족과 민중,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져 살아왔다. 남북 분단 국가에 평화의 꿈 희망이요, 삶이라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2.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기영= 제가 평소에 책을 즐겨 읽는 편인데 요즘 선거 때문에 바빠서 책을 자주 읽지는 못했다. 지난 2월에 읽었던 김란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란 책이 기억에 남는다. 취업난과 학업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선배가 보

내는 따뜻한 말들이 많이 담겨 있어 저도 감명 깊게 읽었다. 책을 많이 읽는 사회는 언제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

●최문순=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이 '붉은 뱀을 야수'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3. 노래방 18번지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기영= 최성수의 동행이다. 이 노래는 제가 힘이 들거나 마음속의 고민이 있을 때 위로가 되어주고, 새롭게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저의 18번지다. 노래 가사처럼 강원도민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걸어갈 마음의 준비가 저 엄기영은 되어있다.

●최문순= 〈전우여 잘 가라〉.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유신반대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때 고교생들이 모여서 무슨 노래를 불렀겠는가. 지금도 이 노래밖에 모른다.

4. 즐겨 먹는 생선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기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생선인 고등어다. 제가 어렸을 적 살던 곳은 산골이어서 생선이 정말 귀했다. 가끔이나

마 올라오는 고등어는 저희 가족에게 있어 최고의 반찬이었다. 한참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고등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 이면서 제게 초심을 잃지않게 하는 최고의 반찬이다.

●최문순= 어렸을 적 어머니가 주로 면 음식을 많이 해주셔서 면 음식을 좋아하는 데 그 가운데 시원하고 매콤한 물회 육수에 말아먹는 소면을 특히 좋아한다. 가족들과 함께 종종 먹으러 가고 있지만, 강원도 맛은 어느 지역도 따라 올 수 없다.

5. 최근 신정아씨가 발간한 에세이집 '4001'이란 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엄기영=아무래도 세간의 관심은 감각적인 내용에 집중되는 것 같다. 신정아씨의 책이 많이 팔리면서 기존의 소설가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한다.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정서적 느낌을 주는 책은 분명 아닌 듯 한데,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가 아니라 남녀간의 불륜과 좋지 못한 뒷 이야기들이 주를 이뤄서 그런 것 아닌 가 생각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감춰진 비밀 이야기들이 더 궁금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아닐까.

●최문순=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인, 민의를 대변해야 할 언론인들에 대한 한 여성의 신랄한 고백이 그 원인이 아

닐까 싶다. 국민들은 존경 받을 만한 정치인과 믿을 만한 언론에 목말라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부재로 인해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앞서게 되는 것 같다. 신정아씨의 에세이집은 그런 국민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카타르시스를 안겨준 것이 아닐까.

6. 조선시대 민중에게 영향을 미쳤던 '정감록'에서는 강원도 사람들의 특징을 '암하노불(巖下老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기영= 조선시대 초기 강원도민을 일컬어 암하노불이라 평한 걸로 알고 있다. 이 말과 관련하여 언론에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크게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였다. 강원도민을 위하여,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암하노불이 될 각오가 되어있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강원도당 엄기영이기 때문이다.

●최문순= 지난 50년, 강원도는 한나라당 일당 독주체제였다. 정부·여당에게 강원도는 암하노불같은 '착하고 선량한 산골 국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암하노불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것이다. 강원도는 자존심이 강한, 근성 있는 백성들이 모여 사는 저력이 있는 고장이다. 저 역시 이런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강원도 사람이다.